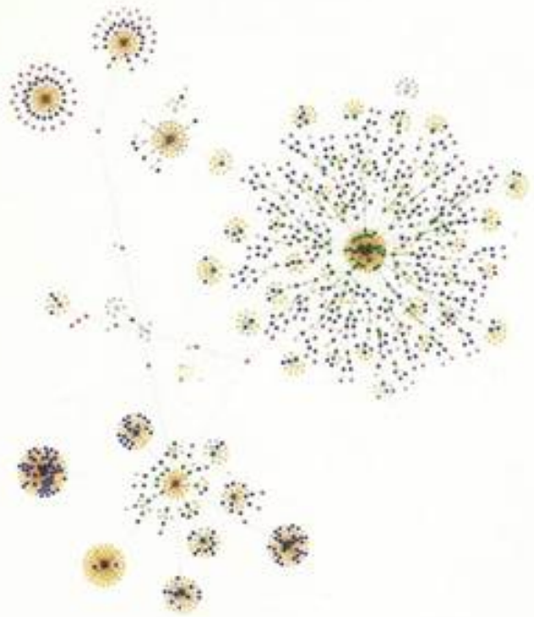


# 3일간의 무지개빛 축제

5월 30일 12시 30분
중도앞 민주광장
개막퍼포먼스 어화둥둥, 레즈비언

5월 30일~6월 1일 오전10시~오후6시
부를샘 앞 천막과 계단
전시 당신과 나 사이의 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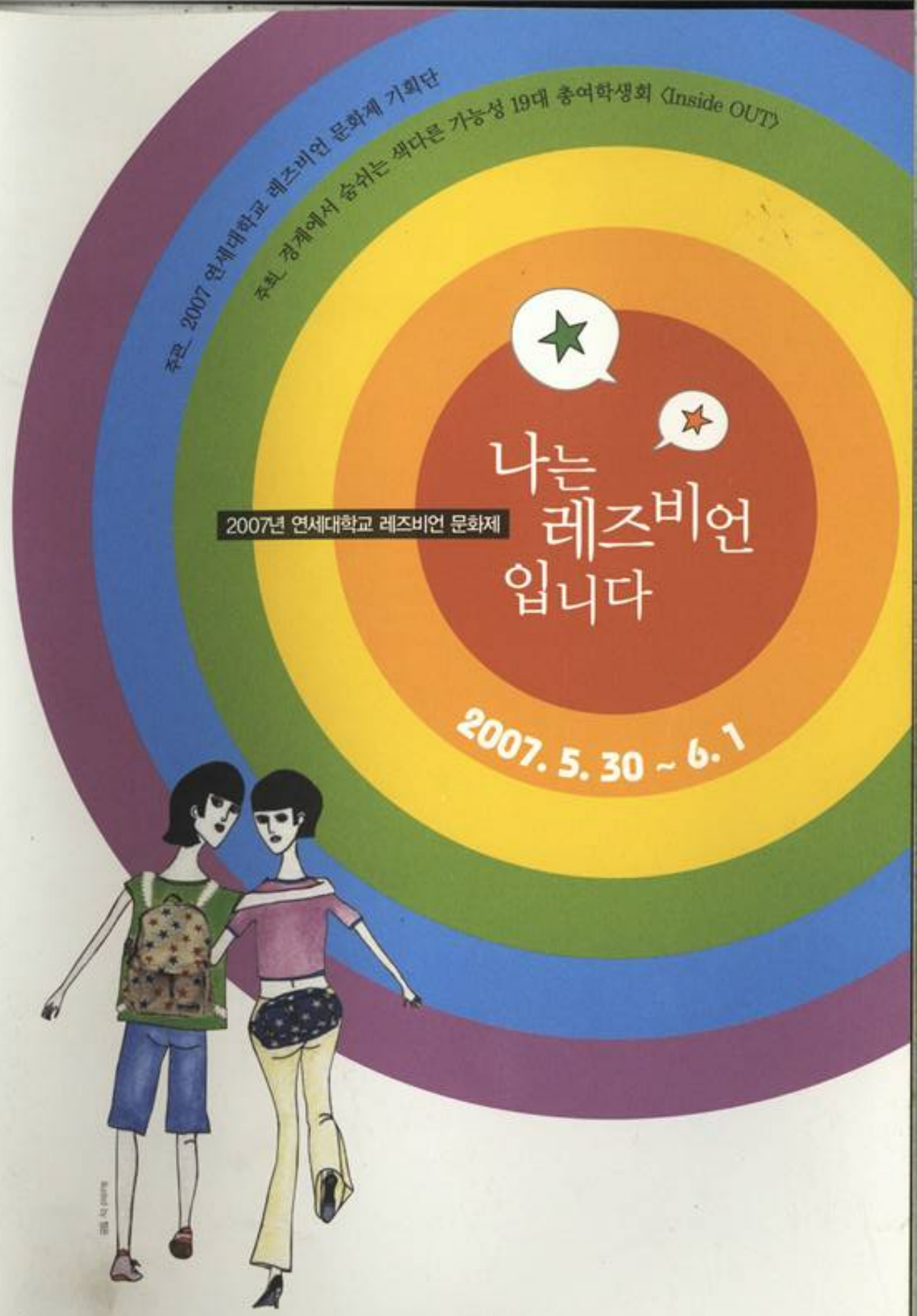
5월 30일(수) 오후 7시
백양관 강당
영화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OUT〉

5월 31일(목) 오후 7시
백양관 강당
강연 성정체성, 그 놓칠 수 없는 정체성

6월 1일(금) 오후 7시
장소 추후 공지
영상제 및 워크샵 외롭고 웃긴 희곡

inside-out@yonsei.ac.kr로 참가 신청해 주세요.
이름과 소속과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소는 추후에 공지해드립니다.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 http://club.cyworld.com/inside-out2007 inside-out@yonsei.ac.kr



2007년 레즈비언 문화제

# 나는 레즈비언 입니다

## CONTENTS

02 • 레즈비언 문화제 기조글 〈레레레레 레즈비언〉

### 레즈비언을 말하자

04 • 레즈비언이 누구야? 누가 레즈비언이야?
06 • 나 재미로 동성연애해! 근데?
07 • 왜 레즈비언 '문화제' 인가
08 • 나의 레즈비언 공간 이야기
10 • 레즈비언 시민권과 문화제

### 호모포비아를 말하자

12 •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 말끔한 이성애를 주의하자
14 • 동성애자 억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 가족' 과 동성애 억압
17 • 레즈비언 혐오사건

### 퍼포먼스

18 • 개막식 어화둥둥 레즈비언
19 •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렇다구요.'

### 영상

21 • 생동하는 호모포비아/ 퀴어 유토피아/ 일상

### 전시

22 • 당신과 나 사이의 틈

### 영화

23 •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OUT

### 강연

24 • 성정체성, 그 놓칠 수 없는 정치성

### 워크샵

25 • 외롭고 웃긴 희곡

26 • 기획단 후기

*써볼까.*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하는걸까?
모두 레즈비언은 아닐텐데,
그러면 왜 아무도 레즈비언 이야기를 하지 않는걸까?
적어도 열명 중 한 명은 레즈비언일텐데,
레즈비언 여학생의 목소리는 어디에 숨죽어 있을까?

*말해볼까.*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이 아닌데? –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녀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욕설과 폭압은 그녀들만의 책임인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너무 전복적인가?
하지만, '너무' 전복하지 않아도 되는걸까?

*터뜨리자.*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 레레레레 레즈비언

## 나 답답해서 말꺼낸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일단 동성애를 사회악으로, 동성애자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체제의 시선에서 교과서가 쓰이고[1],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탄압해야 이성애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정상' 가족을 착취할 수 있는 기업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상품을 공급한다[2]. 목소리 좀 크고 돈 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말해대니,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변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로 중요한데, 주변인은 일단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아무도 위정자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 심지어 머릿속 신경세포부터 그들의 논리에 부합해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사회적으로 논리를 장악해야 하니까. 그들이 논리를 장악해야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람들이 살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권력이다.
그래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기획했다. 가부장제의 시선으로 주변화되고, 이성애자의 시선으로 변형되어 대상화되는 비이성애 정체성, 편견과 차별로 왜곡된 비이성애 정체성이 아닌,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유포시키고 싶었다. 물론 우리는 자금력에서 딸리니까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뼛속부터 하나하나 다시 세뇌시키는 물량공세는 못한다. 그래도 눈길을 끌기 위해 빨주노초파보의 무지개 현수막을 달고 괴이한 문구를 박은 단체티셔츠를 입고 퍼포먼스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 '성별' 그 씹어먹을 것

왜 레즈비언 문화제야? 퀴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편협하게 대상을 설정해? 라는 물음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레즈비언 문화제' 라는 이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러한 담론을 형성해, 어떤 말을 하건 '여자다워야' 하거나 '남자답게' 행동해야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주체들, 성별 역할 분담으로 불쾌하고 짜증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성' 에게 끌려야만 정상이라는 소문에 '동성' 에게 끌리는 자신이 정말 변태인지 고민했던 수많은 동성애자들, 성적 욕망이 없다는 편견에 덮인 '여성' 이기에 존재 자체가 삭제되었던 레즈비언들, 타인들이 자신을 볼 때에 판단하는 '성별' 과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성별' 이 달라서 거짓말해야만 했던 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성별' 자체를 흔들어내어 '성별' 에 의한 모든 폭력에 대한 반대를 한가득 포괄하고 싶었다.

## 우리 퀴어하면 안 될까요?

'이성애 중심주의' 한 마디는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키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한꺼번에 주변화할 수 있는 '정상' 이데올로기와 그로 의한 폭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일단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인과의 관계맺음, 이성애가 아닌 성애에 대한 혐오가 허용하는 호모포비아의 횡포, 비이성애자가 겪는 자기혐오와 정체성 혼란, 특히 '이성애가 정상' 이라는 '상식' 을 믿어야만 하는 극히 당연한 사회화까지.
그러니까 이성애만이 정상이라서 너무나도 많은 폭력과 억압이 발생한다. 그 생각 하나 버리면 좀 편할 것 같다. 여성인 내가 동네에서 축구왕을 먹어도 신문에 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여성과 백년가약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내 남성인 친구를 부를 때에 '애인이 아닌 남자친구' 라는 길고 긴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성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확립하지 않음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으리라. 이성애 중심주의 하나만 '이상' 해지자. 퀴어하자. 그래 퀴어하자.

## 레레레레 레즈비언 문화제에 놀러오세용~

레즈비언 문화제는 '주체적으로 말하는 레즈비언 운동' 의 일환이다. 학내에는 이 지면을 빌어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과 여남이 모두 섞여있지만, 우리 문화제 이름은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다. "어머 레즈비언만 참여하는 문화제야?" 라고 편견갖지 마시고,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쯤 들여다봐주길 바란다. 솔직히 욕심내자면 연세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성애 중심주의의 폭력과 성별권력에 의한 폭력에 주체적으로 반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폭력하지 말자. 비폭력이 좋은거다. 이성애 중심주의를 붙들고 안 놓는 것이 왜 폭력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더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문화제 사흘 뿐 아니라 365일 열여섯구절 굽이굽이 풀어내고자 하니까. 한번이라도 맞닥뜨린다면 그걸로 기쁘다. 그게 우리들의 정치고, 이 문화제는 그를 좀 상콤하게 보여주기 위한 아주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다. 끝에 이벤트라고 화려하고 즐겁게 룰루랄라 춤추며 박터지며 열심히 준비했으니 놀러오시라. ■

by_지몽

---

1)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유치원에 투입되어야하나 하는 생각도 한다.
2) 여기서는 또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성공해서 CEO가 되어야하나 하는 생각도 한다. 근데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퀴어한 사람은 주류에 편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겠니.

# 레즈비언이 누구야?
# 누가 레즈비언이야?

*우리 문화제에, 티셔츠에, 사과파이에 당당히 이름을 박은 그녀, 레즈비언은 누구인가? 은근히 비밀스럽게 오가는 '누가 레즈비언이래'라는 말에 비하면 앞의 질문은 너무 어렵다. 네이버에 의하면[1] 요약하면 여성 동성애자요, 풀어쓰면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 정서적 ·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여성 중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여성이며,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그리스 에게해의 레스보스섬에서 유래, 레즈비언시인 사포(Sappho)의 거주지가 레스보스섬이라서 만들어진 말이란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정보 말고, 레즈비언이 누구인지, 누가 레즈비언인지 풀어보자.*

## *Part.1* 레즈비언이 누군가?

연애와 친밀성의 차이는 '끌림과 떨림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누군가는 말했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바라보면 막 만지고 싶은 것. 레즈비언은, 그 끌림과 떨림을 여성에게 느끼는 여성을 일컫는다. 여기까지 읽으며 기분나쁜 분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지극히 '자연' 스럽게 서로 끌리고 연애하고 섹스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레즈비언 관계를 그냥 각별한 우정 정도로 폄하하거나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가 아닌 정신적 관계'로 오해하는 것은 그들이 '여성에게는 성욕이 없다'는 제도권 성교육 혹은 남성중심 포르노교육을 너무 열심히 받았기 때문이다. 왜곡된 정보는 왜곡된 인식을 낳고 왜곡된 사고가 폭력을 용인하며, 또다시 왜곡된 정보를 지치지도 않고 재생산한다.

왜곡된 정보를 하나 더 들어볼까? 동성애의 원인에 대하여는 유혹설, 환경설, 호르몬 비조화설, 영향설, 도피설, 유전설, 선천적 결함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설은 없다는데[2], 정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거 다 개소리다. 일단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해서 원인이 없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 사회의 성애는 이성애 중심주의로 꽉 짜여져 있으므로, 이성애자인 누군가는 동성애를 이해할 수 없기도 하다. 그러나 동성애가 아무 문제없이 자기 삶의 일부인 사람도 있고, 이성애 중심성을 열심히 학습했기에 그런 자신이 너무너무 불쾌하긴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경험으로써 동성애자인 사람도 있다. 이성애나 동성애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둘 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다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그냥 다수의 횡포다.

그니까, 다들 김치가 맛있다 한다고 누구에게나 김치가 맛있는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협박해서 김치 먹이려들지 마시라고요. 김치사랑 노래를 24시간 틀어주고 방을 김치무늬 벽지로 도배해주고 매시간 끼니끼니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샐러드, 김치스파게티 만들어서 먹이려 들어도 자기가 맛없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거야. 응?
레즈비언은, 김치는… 모르겠다. 먹거나 안 먹거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겠고, 여튼 그녀들은 이성애주의자는 안 한다.

## *Part.2* 누가 레즈비언인가?

가끔 '누가' 레즈비언인가 하는 질문도 너무 어렵다. 이반 감열 두 번째 이야기, OUT의 주인공 천재는 "나는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레즈비언일까?" 고민한다. 그녀는 레즈비언일까?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어도 그녀는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성정체성에 대한 제일 웃기는 편견 중 하나가 이거다. 그 사람이 '게이'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성만 사랑해야 한다고 믿는 것. 그 사람이 '레즈비언'이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맺음을 하더라도 남성에게 끌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 그 사람이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트랜스젠더'면 어떤 일을 하건 치마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3]. '이성애자'면 동성에게 한치의 색슈얼한 감정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만에 하나 느꼈을 경우 호감으로 묻어버려야 한다는 것.

정체성은 누군가 어떻게 판단해주느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해주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하고 스스로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애는 국가와 제도와 법과 권위있는 학자들이 결정해주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학습되어왔기에 형성된,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타인에 대한 자신감 과잉이 묘하게 맞물려 누군가를, 혹은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재단하려 든다. 거기에 덧붙여 '이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로 박혀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파악하고 관리하기 쉬우니까. 근데 왜 사람들의 성애를 관리하고 제약하려 들어? 왜왜왜왜 내가 누구랑 섹스를 하든말든 니가 무슨 상관인데???????

중고등학교 때에 불순 동성 교제한 언니들, 지금은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레즈비언 청소녀를 부인할 수 없다. 그 기억을 미워하지 말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길 바란다. 생물학적 성은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성을 사랑하는 언니, 멋진 레즈비언이다.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남성 애인도 만나는 언니, 자기가 그렇게 정체화하니 레즈비언 맞다. 현재 여자만 있는 학교에 다니고 여자들에게 끌려서 혼란스러운 언니, 그냥 자신의 레즈비언을 받아들이고 신나게 동성연애하기를 권장한다.

레즈비언이라는 수식을 쉽게 획득할 수도, 쉽게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관리 하에 레즈비언으로 분류되어 평생 레즈비언 딱지를 붙이고 사는 것도 지랄이고 이성애자로 분류되어 평생 이성애자 딱지를 붙이고 사는 것도 지랄이다. 넘나들 수 있는 성애, 그게 만인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중구리장창 써 놓았지만 결론은 그냥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면 레즈비언'이라는 것이다. 그 생각이 바뀌면 레즈비언 아닌게 되는 거고,
그게 그대로 맞다. ■

by_ 자몽

---

1) 그렇다고 네이버가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검색해도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이 난무합니다. 찾아봤다가 홍창 열받았네요.
2) 이것도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 이랬다.
3) 실제로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 상담이 끝날 무렵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의 치의학 판단에 따라 상담이 2년이나 연장된 사례가 있다.

# 나 재미로 동성연애해! 근데?

나 재미로 동성연애해! **근데?** 내가 꼬셔서 나랑 사귀게 된 애들이 몇 있지? **근데?** 주변에 레즈비언이 많아서 레즈비언이 된 영향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 **근데?** 난 남자한테 별로 인기 없어. 그리고 남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그래서 동성에게 끌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중 고등학교 때랑 언제나 주변에 여자밖에 없긴 했어. 그래서 동성애에 빠져든 걸지도 모르지. **근데?** 의사가 그러는데 난 여성호르몬이 부족하대.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남성스럽게 노는 거에 별로 잔소리 하지 않았어. 굳이 싫다는데 치마를 입히고 미미 인형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레즈비언이 되었나? **근데?** 엄마랑 내가 많이 싸우기는 했지. 그래서 가출도 한 적 있고. 지금도 부모님이랑 속 이야기까지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야. 그래서 동성애자가 되었나? **근데?** 난 애를 낳고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남자의 아내로 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레즈비언이 되었나?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동성애는 유전이래. 아마 우리집안에 동성애 피가 흐르나봐. **근데?**

##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동성애자가 싫어?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대화가 가능할 텐데.

## 발전이 있는 대화를 위한 캠페인

**하나,** 제발 어설프게 "동성애자? 그냥 싫어. 징그럽잖아." 그런 말, 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싫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폭력이 어디 있겠는가.

**둘,** 이유를 대려면 생각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해보고 말하자. "동성애를 허용하면(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지만) 동성애가 널리 퍼질까봐" 란 대답은 그냥 동성애가 싫다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퍼지게 될지 아닐지는 둘째 치고 왜 퍼지면 안 되는지를 말하자.

"애를 안 낳으니까"라고 할 거면 애만 낳으면 괜찮은 건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보자.

"성경에서 금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성경에서 금지했지만 현재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다른 것들(날고기를 먹는 것, 한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는 것, 두 종류의 실로 만든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생각도 같이 말하자. 그래야 헛소리 들리지 않고 설득력 있는 이유로 들릴 "가능성"이 있을 테니. ■

by_ 오리



# 왜 레즈비언 '문화제' 인가

전시 위주의 문화제, 보여주기 중심의 문화제 방식에 대해서 문화제를 꾸려나가면서 그 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생겼다. 같이 기획단을 하고 있던 분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나 스스로 꽤 동감했기 때문이다. 전시, 그 중 특히 사진전은 자칫 드러내기가 아니라, '보여지기' 가 될 수 있다. 레즈비언 '문화제' 를 꾸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제를 통해 레즈비언의 성 정체성이 주체적으로 당당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가 누구로 인해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지금의 문화제라는 형태가 갖는 한계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문화제라는 형식을 고수하여 레즈비언 운동의 판을 벌리는 이유를 살짝 말해보고자 한다.

타인에 의해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이를 '아웃팅' 이라 일컫는다. 커밍아웃이 성소수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아웃팅은 남에 의해 자행된 하나의 폭력이라 할 수 있겠다. 아웃팅을 통해 성소수자들은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 일순위가 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강요당하게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주체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레즈비언 운동을 비롯하여 이 시대의 성소수자 운동은 운동하는 자가 주체로 나서서 운동하기 어려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에 서 있다. 그 존재마저 부정하려 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다가올 후폭풍들을 생각하면 이는 어쩌면 아이러니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이 없는 그런 사회를 위해 성소수자 운동이 존재하는 것이니, 만약 성소수자들이 후폭풍의 두려움 없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때에는 인권 운동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치사하고 더러운 사회적 행태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레즈비언 운동을 비롯한 성소수자 운동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활발한 경우가 많았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웹상의 커뮤니티는 성소수자들에게 '아웃팅' 의 위험을 줄여주었고 이런 장점 덕에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경우 2000년 초 1년 사이 백여 개의 커뮤니티가 생겨나기도 했다.[1] 2001년, 그렇게 만들어진 웹에서의 친목모임 조차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접속 자체가 차단되어 버리는 상황을 접하기도 했으나,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속해 있었던 동성애 조항이 폐지되기도 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공간을 보장받는 것조차(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숨어서' 운동한다고 손가락질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학내에서 새롭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담론을 생성하고 이를 통한 개인의 성찰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 중 문화제는 학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어쩌면 이를 두고 소극적인 운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성애가 세상에 존재하는 성애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호모포비아적 담론이 만연한 것이 현 학내문화의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제만큼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고, 각자의 성찰이 전체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운동방식이 또 무엇이 있을까. 아웃팅의 두려움을 '숨는다' 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무쪼록 이번 문화제를 통해 이성애주의의 틀을 깨고 성애에 대한 새로운 담론형성에 함께했으면 한다. 혹여나 당신이 당당하게 동성애자들을 비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안한 것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알았다면 당신이야말로 문화제의 진정한 참가자! ■

by_ 유나

1)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 나의 레즈비언 공간 이야기

*애당초 동성애자들에게 사적 공간이 있기는 했는가! … 동성애자들에겐 아무런 공간도 없다. 사적 공간은 동성애자에겐 허구다. … 갑자기 부모님이 오신다거나 커밍아웃하지 않은 지인의 방문은 대형사건이 된다. 하다못해 도시가스 검침이나 가전 제품의 방문수리만 와도 긴장이 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라도 산다면 매일 그 앞을 지나쳐야 하는 늙수그레한 관리인까지 신경써야 한다. 그들이 기꺼이 우리를 이성애자로 간주하도록 공간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 동성애자로서의 공적 공간도 없다.*

활동가 한채윤의 "이중공간 속 부유하는 레즈비언"[1] 中

## 나는 언제나 레즈비언으로 살지는 못했다

거의 중학생 시절, 나는 내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나는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았다. 변태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이성애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평생에 한번도 내 성정체성으로 인해 괴로운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언제나 레즈비언일 수는 없다는 사실, 그것이 괴로웠다. 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 남자랑 섹스했어? 라는 의문을 품으신다면 그 빈약한 상상력을 한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서는 솟구칠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레즈비언이 아닌 척, 이성애자의 연기를 매우 잘 해냈다. 내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어떤 연예인이 멋있다든지의 내용에서 실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성 연애나 좋아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만이 쏟아져 나오는 속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이성) 연애에는 관심없는 그저 쿨한 언니인 척 연기했다.

친했던 친구에게 덜컥 아무렇지 않은 듯 커밍아웃 해버린 순간부터, 좋아했던 친구에게 은근슬쩍 고백 비슷한 것을 해본 순간부터, 나는 내 성정체성이 내 관계를 뒤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해줄지는 몰라도, 글쎄다. 나는 레즈비언이 아닌 채로 살았었다. 그게 편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다.

## 레즈비언 공간 찾아나서기

그때부터 나는 내가 레즈비언으로 있을 수 있는, 진정 편한 공간을 찾아다녔다. 인터넷상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어쩌다 알게 된 레즈비언 친구들과 함께 소위 신촌 공원이라고 불리던 곳을 가보고, 그 근처에 있던 레즈비언 카페를 가보게 된 것도 거의 그쯤이다. 레즈비언을 위한 카페나 클럽도 많이 있었지만, 장사가 안 된다거나, 창업하는 것부터 아웃팅의 위험이 있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리 많지 않았다. 게다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낮 시간에만 허용될 뿐이어서, 우리는 우리 공간을 만들어갈 필요가 절실했다.

레즈비언의 역사를 더듬 더듬 찾아내다 보면 당시 명동에 레즈비언 공간을 만들어가던 이야기가 나온다.[2] 방법은? 그냥 어느 한 곳을 '점유' 해버리는 것이다. 소문과 소문을 타고 그 곳에 레즈비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르바이트생이 레즈비언 친구들이어서 레즈비언 공간이 되기도 하고, 레즈비언 공간이 되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레즈비언이 채용되기도 한다. 그런 방식이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이어진 듯하다.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촌의 한 카페 역시 그런 공간이었다. 어떻게 누가 처음 그곳으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갔었던 그 시점에서 그 카페는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주말이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올랐다. 카페를 빌려서 이벤트 같은 것-언약식을 했다는 이야기도 풍문으로 들었다-을 하기도 했단다.

그 공간에서는 친구 커플에게 요새 잘 돼가? 라고 당당히 물어볼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필요도 없었고, 여자 친구 옆에 앉아서 팔짱을 낄 수도 있었다. 이반이라는 단어조차 모두가 알아듣는 단어가 되어버려서 다른 단어로 대체하거나, 속삭이며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끔은 "내가 이반이다~"라고 소리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기도 했다. 그런 해방구였다.

의외로 레즈비언 공간은 여기 저기 조금씩 숨어있었다. 물론,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아예 가게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성애자들 때문에, 때론 조마조마했었고, 학교와 집 근처로는 다니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촌에 가기도 하고, 서울 지역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그 공간을 찾아다녔다. 그곳은 레즈비언인 내가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 레즈비언 공간의 추억, 그리고 지금의 레즈비언 공간

공부를 해야 하고, 집에서 착한 딸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고등학교 때는 레즈비언 공간에 한번도 가지 않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히 레즈비언 클럽이나 바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 레즈비언의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행히, 레즈비언 커뮤니티도 만났고, 호모포비아를 숨숨 내뿜어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끊어 가다보니, 나의 청소녀 시절보다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떠들기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레즈비언의 공간은 필요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편의점에서 친구에게 나의 연애담을 들려주었을 때, 그때는 술에 취해서 어쩌됐든 상관없다, 라는 심보였지만 술이 깨고 나서, 아, 계속해서 괴물 만난 듯 하던 그 편의점 알바와 설마 다시 마주칠 일은 없겠지? 라는 불안한 마음은 잘 떨쳐지지 않는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레즈비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서 쉽게 대쉬하지 못하고 떠돈다. 그래서 이 불안불안한 마음 버리고서, 내가 레즈비언이어도 괜찮고, 동성 '연애'를 해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 아직까지는 절실히, 아마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필요할 것 같다.

이 속에서 학교에서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리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이 문화제가 내가 정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레즈비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교가, 그리고 이 사회가 레즈비언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 레즈비언 문화제 기조가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란다. 중학생 시절, 신촌 어느 까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외쳤던 그 씁쓸했던 "내가 이반이다~"가 떠오른다. 레즈비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외쳐보고 싶었던 그것. 아주 조금 후련해진다. ■

by_ 컴투게더 회원 1인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

1) 언니네(www.unninet.co.kr) 특집 83호 (공간) 中 "이중 공간 속 부유하는 레즈비언"글은 중간중간 영감댕감 빌라 붙인 것이니, 그 진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2) 언니네(www.unninet.co.kr) 특집 83호 (공간) 中 "레즈비언 해방 공간, 70년대 명동"

# 레즈비언 시민권과 문화제

## 레즈비언 시민권?

레즈비언 시민권이라는 말에 당황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레즈비언은 엄연히 사적인 영역인 섹슈얼리티에 근거하고 시민권은 공적인 영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나 가만히 있어야 할 누군가가 밖에서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꼴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레즈비언 시민권은 정말로 정직한 개념이다. 레즈비언 시민권을 언명하는 것은 섹슈얼리티 역시 시민권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이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 모두 성적 시민이며 성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성애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종류의 성적 시민권이 있다는 '상상' 조차 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하물며 자신들이 성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레즈비언 시민들은 그나마 낫다. 발가벗은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행차하는 임금님같은 성적 시민권자들은 우습다.

모든 사람이 성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David Bell과 Jon Binnie라는 두 연구자가 처음 한 말이다. 성적 시민이라는 신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있지만 개개의 시민권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성애자들은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권리, 이성애자로 정체화할 권리, 결혼에 대한 권리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반면,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은 이성애자들이 지닌 권리 중 다수를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이성애 시민과 레즈비언, 게이 시민이 가진 차이다. 조금 더 이야기를 구체화시켜보자면 레즈비언은 성적 소수자인 동시에 여성이어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예를 들면 몇몇 학자들은 게이들의 경제력이 레즈비언들보다 앞서므로 게이 시민권만을 논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가 소비자로서의 권리인데, 레즈비언들보다는 게이들이 구매력이 강하므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

1) 여기서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가진 문제적인 함의들 – 주로 게이들이 강력한 구매자로 반복 재현되며 '일등 구매자'로 스테레오타입화되는 것,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시민적 권리와 같은 다른 중요한 시민적 권리의 사라짐 현상 등–은 여기서 다룰일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영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 운동은 소도미법이나 성행위 동의 연령 (consent law)등과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중심이 맞춰진 바 있다. 레즈비언 시민과 게이 시민이 서로 다른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목적은 레즈비언과 게이 운동을 분리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니며 '다른' 만큼,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번 레즈비언 문화제는 레즈비언이 가진 특수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데 레즈비언 문화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단지 레즈비언의 특수성을 짚어보는 데에 있지 않다. 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레즈비언 문화제가 지향하는 바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문화제는 정체성에 상관없이 이성애중심주의에 저항하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된다.

## 레즈비언 시민과 문화제

여기까지 읽은 당신, '그런데 문화제는 왜 해?' 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레즈비언이면 레즈비언이지, 그걸 가지고 문화제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1등급 이성애주의자로서 이번 문화제에서 기획한 '이성애주의자가 되는 길' 을 반드시 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걷는 일이, 즉 이탈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길을 벗어난 이탈자는 주어진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레즈비언들은 실상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떠한 일을 해도 튀어 보인다. 미국의 한 동성애자 인권 단체 사이트를 뒤지다가 황당한 글을 발견했다.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커밍아웃 매뉴얼에 "주변 사람들이 제가 섹슈얼리티를 과시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라는 질문형식의 항목이 있었던 것이다. 과시라는 것은 원래 부와 명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선망하는 대상을 내보이고 다닐 때 쓰는 표현 아니던가? 웬만한 프라이드의 소유자가 아니고서야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자랑하고 다니기는 힘들다. 그리고 '과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성애주의자들에게 성적 소수자 정체성 표현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얌전하게 행해져야 하는 비밀스런 행위다. 성적 소수자들의 행동이 밖으로 표출되면 '과시' 가 되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들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일이 '과시하는 것' 처럼 되어버린 이유는 이성애자들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가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 말이다. 성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왔지만,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역시 권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새삼 사람의 정체성이 얼만큼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성적 소수자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역으로 이성애주의의 특권이 삶의 작은 부분들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섹슈얼리티와 시민의 권리는 서로 동떨어져 있기는 커녕,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레즈비언 문화제는 섹슈얼리티와 시민권이 맺고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성애중심성을 드러낼 것이다. 문화제가 대학이라는, 이성애중심주의가 판치는 공간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언젠가는 대학 새내기들이 미팅을 나가면,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먼저 따져보는 세상이 오게 되기를. ■

by_ 직지인 강한 복에
알

강의실에서 말한다. "이 문학 작품을 연애관계에 그대로 비유할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길을 걷다 친구가 말한다. "넌 남자친구 언제 사귈 거야? 시간 더 지나면 선봐야 한다." 한자리에 모인 친척들이 말한다. "너, 결혼은 언제 할거냐."

사회는 언제나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사이로 묶는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만 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만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러한 만남이란 '제 때' 라는 것도 있어서, 제 때에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고, 매력이 없고,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이란다.
사랑의 스튜디오에서는 여성 참가자와 남성 참가자의 만남을 자랑스레 주선하고, 몇 쌍이 성사되었는지를 다룬다. '우리' 네 엠티에선 사랑의 짝대기를 통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연애를 주선한다. 틈이 없다. 이성애만이 우리가 만들어나갈 관계이고, 사랑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다른 성정체성이란 엄청난 '상상' 을 요할 뿐이다.

이성애 정체성과 관계만이 정상이며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이성애가 아닌 성정체성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억압하는 권력구조를 이성애중심주의라고 한다. 사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묻는다. "넌 어쩌다가 동성애자가 되었니?" "동성애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니?" "이성애 경험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사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넌 어쩌다가 이성애자가 되었니?" "이성애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니?" "동성애 경험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왜 이성애에 한해서는 하지 않는 질문들이 동성애에만 해당되는가, 그것도 매우 당연하다는 듯.

Audited by wapie

#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 말끔한 이성애를 주의하자

동성애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촘촘하며, 공고하다.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성정체성이란 이성애를 기준으로 두고, '용납'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린다. '이성애가 아니라면 비정상' 이라는 폭력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또한 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된다. 마치 이곳엔 없는 것처럼,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를 이야기 하는 강의실에서 동성애를 개인의 성정체성으로 '인정' 한다는 우아한 호모 포비아는 동성애를 '인정'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지어 놓는다.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 답고, 남성은 '남성' 다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학습된다. "여자 애가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크냐." "남자는 말야 일생에 세 번 운다. 그게 남자야." "여자 아이가 치마 입고 그렇게 뛰면 안되지." "남자는 씩씩해야지. 이렇게 인형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등등. 모든 행동의 제약이나 꾸지람, 가르침이란 것은 꼭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았는가. "여자 애가 무슨…" "남자는 말야…"

성별에 따라 개인의 의지와 행동은 얼마든지 규정지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성별이분법적 구조의 사회와,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보지 않으려 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한다. 다만 현재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놓은 관계 속에서 '편하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조장한다.

이성애만을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성정체성이 억압받는 것,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니 이제, 다른 질문을 하자. 폭력적인 질문이 그저 질문이라는 이유로 통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성별이분법적인 구조에 기반한 이성애 중심주의가 어떠한 폭력들을 양산해내고 있는지,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 자체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과 고민 없이, 나의 관계와 성정체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 던지기가 없는 말끔한 이성애는 어느 순간, 누구에게든 폭력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니 우리. 말끔한 이성애를 주의하자.■

by_ 우주

# 동성애자 억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 남한[1]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 가족'과 동성애 억압

### ● 들어가며 : 가족, 떼어내고 싶어도 뗄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길러지고, 죽는다. 그리고 가족의 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 일생을 보낸 사람들은 흔히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만일 나의 생물학적 부모가 나를 위해 돈을 벌고, 학교를 보내고, 방을 마련해주는 것을 갑자기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일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가족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정작 가족의 정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출산, 양육, 삶의 질 보존, 노동력의 재충전 등등을 담당하며 혈연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그럴듯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들춰 보고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가족 형태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은, 인류가 역사 시대로 돌입한 이래 가족은 언제나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 받는 기관이었고, 또한 가족이 갓난아이가 그 사회의 가치관, 문화, 도덕 등을 접하며 맨 처음 사회화되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마치 조선 시대 우리가 '양반과 상것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족 안에서 학습 받았듯이 말이다. 이처럼 가족이 사회의 하부 단위이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족을 통제하고 '정상 가족의 범주'를 만드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지배 계급이 원하던 것이었다.

현재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동성애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범주에 들지 않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혐오, 동성애 억압의 뿌리에는 언제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있었으며, 정상 가족을 부추기고 강요하는 국가가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애자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성애 억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탄생한 '정상 가족'이 어떻게 동성애 억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가족의 해체와 동성애 해방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 남한의 초기 자본주의 : 국가 주도의 '성'과 '재생산' 규제

남한에 본격적인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후였다. 당시 남한 지배 계급은 일본 지주들을 몰아내고 '적산', '토지 유상분배' 등을 시행하면서 초기 자본(공장, 기업 등)을 형성해갔고, 일제 시기 민족 자본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농촌의 수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이전해 왔다. 도시의 가족은 더 이상 이전 세대의 가부장적 가족 형태와 같을 수 없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적극 조장했던 박정희 정권은 제2차 5개년 개발 계획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에 걸 맞는 가족 형태를 부추겼다. 그 중 하나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그리고 '보통 교육의 의무화'였다.

해방 이후 국가가 산아 정책 및 각종 법 제정을 통해 가족을 통제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며 적극적인 '베이비붐' 운동을 펼쳐 왔다. 초기 자본주의 발달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을 공급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0~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노동력의 양적(量的) 팽창보다는 질적(質的) 성숙이 중요해져 갔다. 아이가 많은 가족은 좁은 주택에 살면서 자주 이동해야 하는 도시 임금노동자들의 삶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혹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은 임금노동자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가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 노동자로 길러질 수 있도록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는 국가가 4인 이하 가족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 가족 보험료 혜택을 부과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공장 새마을 운동' 또한 가족 내에 갇혀 있던 여성들을 집 밖으로, 즉 공장으로 옮겨 왔다. 이 때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공장 노동을 해야 했다. 가족 내 육아의 일부는 자연스럽게 탁아소나 초등학교로 넘어갔으며, 합법 혹은 불법 탁아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정부는 이들의 불법성을 묵인해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몇 년 후 초등학교 교육은 보통 교육으로 의무화되었다. 온갖 관변 단체를 동원한 캠페인으로 '공장일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상화한 것은 물론이었다.

최근 노령화 사회를 염려한 보건복지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 셋째를 낳을 경우 교육비 혜택 및 세금 감면해주기 정책 역시 이러한 국가주도의 '재생산' 통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노동력 재생산의 규제는 '자유로운 성애'에 대한 규제, 곧 '이성애'의 장려로 이어지는데, 이는 또 다시 이성 간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섹스'를 제외한 모든 성욕의 통제로 나아갔다. 비이성애--특히 동성애--와 청소년의 성애는 근대계몽기 이후부터 줄곧 사회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정부는 콘돔, 피임약 등의 광고와 판매를 철저히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관련 간행물이나 사이트를 유해 매체물 관리, 청소년 보호 등의 해괴한 이유로 검열하거나 폐간시켰다. 1980년대 남한에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종종 동성애자 사이트나 간행물, 출판물, 커뮤니티가 탄압을 받은 사례는 암암리에 알려져 있으며, 이는 90년대 민주화 이후에도 엑스존 사건, 동성애 관련 만화에 대한 합법 출판 불인정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 ● 자본주의와 동성애 억압 : 여전히 '정상 가족'을 '노동력 재생산의 유일한 기구'로

가부장제도의 핵심은 가족이 생산의 기초 단위이자 아이를 재생산하는 유일한 영역이라는 데에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임금노동의 생산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족이 생산의 단위가 되지는 않는다. 가부장제도 역시 아버지가 아이들을 소유하고 남편이 부인을 소유하는 중세의

1) 이 글은 근현대사를 통해 자본주의 가족의 형성 과정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북한의 가족상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대한민국 사회를 명명할 때 '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역사적 맥락을 살려 '남한'이라고 표현하였다.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이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식은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력의 일정한 유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과 국가는 바로 이 부분, 미래의 임금노동자가 될 인력의 재생산을 위해 언제나 가족에 통제를 가하고, 가족을 '출산과 육아의 공간'으로 위치 지워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만으로는 갓난아이가 노동자로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돈을 국가가 대줄 수 없기 때문에, 자본가들과 국가는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절대다수의 돈을 부모에게 지불하게 하고 있다. 그래야만 보다 싼 값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남한의 사교육비가 전체 노동자 가정 지출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바로 이 기능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및 정상 가족 신화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끊임없이 '재생산'과 '성'을 지배 계급의 손아귀 안에 놓으려고 하는 이유다. 계급 사회 등장 이래 지배 계급은 항상 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의 존재--이들은 아이를 직접 생산하지도 않고, 출산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섹스를 즐긴다--를 탄압하는데 앞장서거나 혹은 묵인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동성애 반대 운동이 광범위했던 미국이나 서유럽 등에서는 동성애자 시민권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 동성애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와 호모포비아, 취업에서의 불이익 등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 나가며 :**
**자본주의 철폐 이전에 동성애자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한 사례, 동성애자 커플도 가족과 똑같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끔 법률을 통과시킨 사례를 듣는다. 이러한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자들의 권익 향상을 지지하는 노동자 및 근로대중들이 자본가와 국가를 대상으로 싸우고,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한 것이 있다면, 동성애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조직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계급 사회 이래 동성애 억압은 여성 억압과 함께 가족과 섹스를 통제하려는 지배 계급에 의해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 오늘날의 지배 계급인 자본가들과 그들의 대변자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자는 아직도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이며, 동성애는 재생산의 핵심인 '이성애'의 취지를 뒤흔드는 성애이다. 자본가들은 여전히 미디어를 쥐락펴락하며 호모포비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고, 전통적인 정상 가족을 미화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족 형태가 재생산의 단위로 남아 있는 이상, 가족을 통해 값싸게 노동력을 공급 받아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동성애 해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도 끈질긴 싸움을 통해 결혼권의 획득이나 차별 금지법, 출판 및 간행의 자유와 같은 일정 정도 진보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 억압과 여성 억압의 뿌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 들러붙어 목숨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벽장 속에서 나오게 하고 이성애 중심주의에 문제제기하는 운동을 넘어, 보다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조직해야만 한다. 진정한 동성애 해방의 초석은 이 '정상 가족'의 해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

by_ 광어+오리


**참고문헌**

『동성애자 억압의 사슬 끊기』, SWP.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천이선.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F. 엥겔스.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교과서연구소.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E. Zaretsky
『남한에서 봉건제의 해체와 자본주의 이행』






# 레즈비언 혐오사건

레즈비언 혐오사건 (Rape! for Who I Am)
남아프리카/영국 | 다큐멘터리 | 감독 : 루빈사 카부아

『레즈비언 혐오사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사는 레즈비언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 어떤 과장도 왜곡도 없이 그리고 있다. 그들은 가정과 친구, 사회로부터 배척과 편견, 심지어 강간의 경험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다. 남아공 정부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는 "국가는 나라든 사람이든 인종, 성, 성별, 이념, 인종 혹은 사회 기원, 피부색, 성의 본능, 나이, 무능력, 종교, 양심, 신념, 문화, 언어, 생명을 포함한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가 명시하고 있다. 남아공의 헌법재판소는 현 결혼법안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의회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지지표로 동성결혼(Civil Union)을 법제화했다. 성적지향성에 대해 가장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는 종교쪽을 보더라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영국 국교회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주교는 성적소수자에게 "최종적인 모독은 그들이 신의 자녀임을 의심하는 것이다"와 "인종 차별 정책의 승리 후에 교회가 가치 있는 개혁 운동을 찾는다면, 동성애 공포증과 이성애주의에 대항한 다툼이다"라고 썼다.

이렇게 한 나라의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종교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성적소수자가 살기 좋은 나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레즈비언 혐오사건』을 보면 레즈비언들은 현재 강간당하고 있다. 그녀들은 친구에 의해,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강간당하고 폭행당하며 심지어 살해당한다. 극중 한 여성이 말하길 "복숭아를 따먹지 못한다면 복숭아나무를 왜 심겠느냐."라고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며 자신을 강간했으며, 어떤 여성은 친구라고 믿고 있던 남성 동성애자에 의해 강간당했다. 그는 "너의 여성성을 가르쳐주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애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강간당했으며 "제발 콘돔만이라도 끼라."라고 계속 외쳤지만 그는 결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병과 임신을 걱정해야만 했다. 또 다른 여성은 강간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간범에 의해 협박까지 당해야 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법, 정치, 종교 모두 성적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조차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한다는 사실이 매우 암담하게 느껴진다. 진정으로 성적소수자, 레즈비언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기존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된 세상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일까? 정말로 믿고 싸우면 해방은 이루어질까?

『레즈비언 혐오사건』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잔인한 주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하고 그들의 사회를 꾸려나가며 파티를 열고 퍼레이드에 참가한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그들은 오늘도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세상의 잔인함에 맞서 싸우고 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도 그러길 바란다. 더 나은 세상이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

by_ 현수

개막 퍼포먼스

# 어화둥둥, 레즈비언

노란 티셔츠를 입은 그들이 중도 앞에 나타났다.
기괴한 문구, 기괴한 표정들, 그들이 기괴한 행동을 시작한다.
웃기고 따뜻한, 괴상하고 발랄한, 그녀들의, 그들의, 프리허그들.
빨주노초파보 육색 찬란한 현수막과 함께,
매일매일 흥얼거릴 문화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개막 퍼포먼스, 어화둥둥, 레즈비언.

## 5월 30일 12시 30분
## 중도앞 민주광장

Illustrated by 정은

#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렇다구요'

누구나 다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간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주변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기에 내가 '나'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정말 토나오게도 그렇지 못한 누군가들 역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임을 말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어딘가에, 누군가에 설명하는 일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거짓부렁이고 억압일테다.

이성애중심사회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힘빠질 정도로 이 세상은 이성애중심적이다. 아무리 너네는 이성애중심적이라고 말해도, 도대체 '이성애말고 뭐가 또 있는데' 라는 식이니 할 말 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동성애자라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감춰야 한다. 그의 일상은 언제나 자신을 속이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피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내가 나임을 나부터 알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한다. 그저 내 이야기가 거짓이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살기위해서, 단지 살아가고 싶어서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성애자의 삶은 끊임없는 커밍아웃으로 점철된다. 그것은 동성애자가 계속해서 '나는 동성애자요' 라고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의 커밍아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들 자신과 주변 사이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해 가야 하는 것이다. 이성애중심적인 사회내에서 그들의 커밍아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가시화 되는 것이며, 그 자체로도 기존 질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되기에 많은 경우 억압받거나 무시된다.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은 이런 방식으로 묵살되며, 그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부정해야만 '인간 대접' 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레즈비언 같은 경우, 가족을 비롯한 그녀들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들이 그러한 커밍아웃, 자기 긍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녀가 레즈비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써 기대되는 여러 가지 가부장적 기대들 속에서 그녀의 커밍아웃은 그러한 기대들을 단번에 멸쳐버리는 것으로, 이성애중심사회에서 여성과 레즈비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은 함께 가지 못한다.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과정 자체가 가부장제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레즈비언이 자신을 여성으로써, 또 레즈비언으로써 자신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가 나임을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상이 레즈비언들에겐 가장 절박한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놈의 미친 세상'은 끊임없이 '아웃팅'이라는 것으로 레즈비언들을 위협한다. 커밍아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아웃팅은 타자에 의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동의 없이 폭로되는 것이다. 아웃팅은 커밍아웃에 대한 레즈비언 스스로의 결정권을 빼앗아 가면서, 그녀들을 기존의 논리로 구속하게 된다. 이성애중심사회에서 레즈비언들이 '생명 연장'하려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지해줄 기반을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의 아웃팅은 그야말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 얼토당토않은 상황에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내가 여기 있으니 좀 봐달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남성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에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타나는 후폭풍, 그것이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든 악의적이든 간에 그 호기심 자체가 폭력적인 것이다. 내가 나라는데 거기에 대고 '왜?' 또는 '그래, 힘들지 인정해 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의 없을 뿐더러 다신 한번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은 힘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그 말 자체가 가지는 전복성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말이 가져올 수많은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레즈비언이 소설,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레즈비언이라면 당연히 커밍아웃하여 주체성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커밍아웃하고 '죽어나느니' 차라리 그냥 '그런척' 하고 사는게 편할 수도 있다. 또 그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그저 '쿨'하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이 또다른 가능성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희망 역시 버릴 수 없다.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가 전복인 이성애중심사회에서 레즈비언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의 이야기든 그것은 그 나름의 의미로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 ■

by_ 나누기

## 영상 #1 생동하는 호모포비아

변태같은 새끼 /볼 때마다 불쌍해 /정상적으로 살아 /사랑? 웃기고 있네 / 내가 널 다시보면… /너 뭐하는 애야 /역겨워 /피차 불행이다 /집안을 다 망가뜨릴 생각이야? /왜 그렇게 살아? /착각할 필요 없어 /이해를 하는 차원이 아니야 / 세상 사는게 만만해? /웃기는 놈이구만 /정신과 치료 받아야지 /안쓰럽다

그녀에게 쏟아지는지 아닌지도 모를 가시돋힌 말들이 난무한다.
그녀의 등은 슬프지도 처연하지도 눈물나지도 않다.
꼿꼿한 그 등은 쉬지 않고 걸어간다.

## 영상 #2 퀴어 유토피아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상이, 나에겐 손가락 끝조차 닿지 않을 먼 곳에 있다. 나에게 살아있는 한 내내 두려워할 그 행동을, 다른 이들은 내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보여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행동, 나에게 허용된 것들.

낙서하듯, 살풀이하듯, 그려놓은
퀴어 유토피아.

## 영상 #3 일상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 난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레즈비언의 특성인가?)
그녀는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라는 티셔츠를 입는다. (그래서 그녀는 레즈비언인가?)
그녀는 학교로 걸어올라간다. (그 걸음걸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
그녀는 밥을 먹는다. (그녀가 먹는 메뉴는 레즈비언이 특별히 좋아하는 메뉴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수업을 들으러 간다. ……
누가 레즈비언인가? 무엇이 레즈비언의 일상인가?

# 전시 당신과 나 사이의 틈

## 천막내부 전시

### 〈이성애주의자가 되는 길〉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는 그녀(그). 그 이유는 "나… 사랑하는 여자(남자)가 생겼어" 라는 것!
이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애써 국립정신병동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려는 당신을 위한 전시!
왜, 언제부터, 무엇에 의해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상한, 변태적인,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이성애주의자가 되는 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여/남의 이분법적 구분과 이성애 중심적 사고만을 권해온(혹은 강요해온) 사회적 장치들을 전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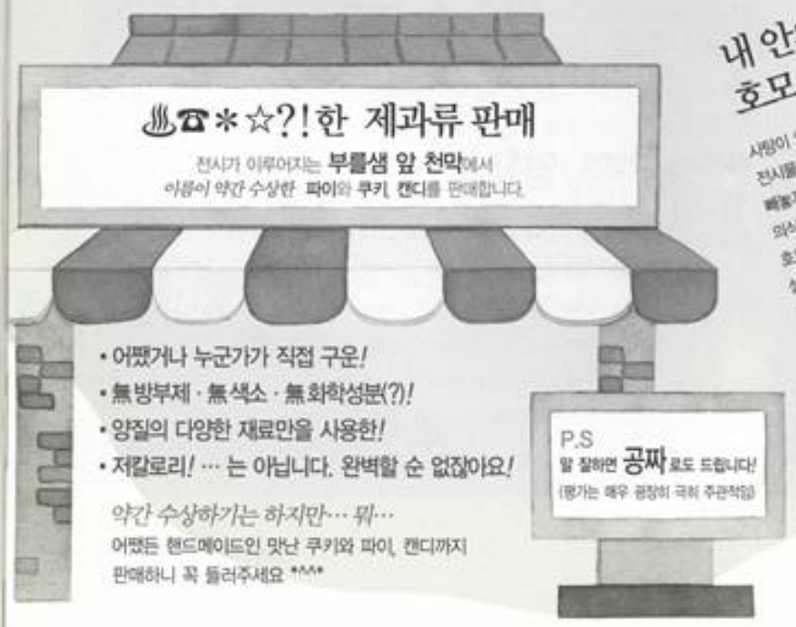
### 〈다양한 레즈비언의 삶〉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키가 크고 반항적인 눈빛을 지닌 짧은 머리의 여성과, 체구가 작고 마른 소녀 같은 이미지의 여성이 서로를 보듬고 있는 것?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앞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단순한 이미지들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나요?
레즈비언은 '여성간의 사랑, 혹은 그 여성'을 일컫는 단어일 뿐인데, 순수한 의미로만 따지면 그리 다를 것 없는 '사랑'이나 '연인' 등의 단어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되고 왜곡된 이미지 속에 갇혀있습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 혹은 한 종류의 편향된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당신! 〈다양한 레즈비언의 삶〉을 통해 '저들'이 아닌 '우리들' 속 다양한 레즈비언의 삶을 살펴보세요.

### 이 길을 따라가면 사탕이 주렁주렁

**문제** 동성애자에 대한 당신의 평소 생각은?
ⓐ 난 호모들 정말 싫어!
ⓑ 게이들? 난 좋아. 꽃미남이 많잖아!
ⓒ 걔네들이 나랑 뭔 상관?

혹시 진지하게 이 보기들 중 뭘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이 길을 걸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천막 전시로 가는 길가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기 내면의 호모포비아(동성애에 대한 두려움과 억압), 그리고 혐오감의 정도를 측정해보시고 그 결과를 살펴보세요!




### 내 안의 호모포비아를 깨뜨리자

사랑이 열리는 길을 따라 호모포비아 테스트를 해보시고 전시물들을 둘러보신 뒤, 천막 한 쪽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도 빠뜨지 말고 눈여겨봐주세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형성된 호모포비아를 부숴버리자는 취지의 간단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깨져서 금이 간 그 조형물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우리 안의 호모포비아적 성향도 함께 산산 조각내보아요!**

*이 페이지의 과녁 - 과정 중 고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화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OUT (Out: Smashing Homophobia Project )**
제작 : 여성영상집단 움 | 총연출 : 여성영상집단 움 | 셀프 연출 : 꼬마, 천재, 초이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OUT〉 중

**10대 레즈비언 out 스토리**

*Coming Out 천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날 레즈비언이라고 말할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확신했던 천재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Outing 초이* "그건 사랑이었을까? 우정이었을까?"
고등학교를 자퇴한 19살 초이는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여자를 좋아한다고 확신하지만, 곧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다시 고민에 빠진다.

*Outsider 꼬마* "엄마, 나 사실 레즈비언이야"
고등학교 2학년 꼬마는 동생들에게 아웃팅을 당해 몇 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이성애자인척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하다.

## 〈이반 검열2〉를 보고나서

*이재규-결국 쓰고 말았다. 나는 호모일까? 느끼한, 하느님이 바라지 않는 사람일까? 결국에는, 누가 이것을 보다면 그를 죽일 것이야. 내 동생이야 순수하니까 괜찮지만 난 너무 드러워, 슬퍼. 이젠 저 글씨와 내가 증오스럽다. 그걸 쓴 내가 증오스러워…*

중학교 1학년 때 쓴 나의 일기이다.
난 오랫동안 내가 느끼던 다양한 감정들과 세상이 정의하는 관계들 사이에서 뼈세게 고민해야 했다. 때론 세상의 강요에 못 이겨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내 감정들을 없애려 한 적도 있었고 때론 '될 대로 되라지' 라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차분히 돌아보기도 했었다. 질문은 언제나 수십 개가 줄줄이 나와 해결할 수 없었고 감정은 언제나 뒤엉켜 다가와 풀 수가 없었다. 답은 없었다. 아니, 답은 있었다. 다만 나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답이었다. 피하고 피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야 겨우 나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정체화 할 수 있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끊임없이 눈물이 뺨에서 입으로 입에서 턱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렸다. 그녀들이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온갖 감정들의 혼란과 살아가려는 절박함. 그녀들의 목소리 뒤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 글로 쓸 수가 없다.

성정체성이 뭔지 생각해본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토록 힘겹고 아프면서도 왜 이성애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되지 못한 걸까.*

영화가 끝난 후에도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미처 나오지 못한 눈물들이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렸다. ■

by_오리

* 독자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언급일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이 문장을 읽고 '그래, 이성애자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좋은거지' 라고 생각할까봐 한마디 하자면, 다양한 성정체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성애인을 강요해,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꺾고 잘라서라도, '이성애자 옷'을 입어야 할까요?

강연

# 성정체성, 그 놓칠 수 없는 정치성

비이성애자는
자신의 '이상함'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개인 취향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강연은 그 두 경로가
각각 어떤 가능성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성소수자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강사 한 채 윤

KSCRC 부대표 · 문화&아카데미 팀장 · 상근


많은 우여곡절끝에 스물 다섯에 동성애자임을 긍정, 하이텔 동성애자모임 (또하나의사랑)대표시삽을 맡으며 동성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됨. 1997년 11월에 주위 사람들 꼬셔서 이른바 한국 최초의 동성애전문지로 불리는 (버디) 창간을 준비. 98년 2월에 창간호를 내고 2003년 12월까지 6년동안 발간하였으며, 현재는 웹진 (이버디) (http://buddy79.com)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운영중임. 퀴어문화축제 무지개2001~2006 집행위원으로 활동했고, 레즈비언 섹스가이드북 (한채윤의 섹스말하기)를 내기도 했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공상하다가 새로운 일 벌여보는 것 좋아함. 하지만 사람들과 부딪치는 건 극히 싫어함. 그냥 조용히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람.



워크샵

# 외롭고 웃긴 희곡

이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개의 설정쪽지에서 당신은 당신이 되야 하는 어떤 사람을
'우연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당신은 어제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같은 여자인 주제에 나의 맘을 너무 못 헤아려! 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 중략 -*

등의 이야기가 적혀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쪽지는 당신의 '가면'이 되고 만약 당신이 남성이든 그렇지 않든
그 시간의 희극 안에서
당신은 '어제 이별을 경험한 여성'이 되어 연기하게 됩니다.

실은 아주 어려운 워크샵이지요.
하지만 이 '외롭고 웃긴 희극'에서 우리는 어렵고 낯설지만
또 즐길만한 게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낯설
당신에게 새로운 상황설정과 가면을
당신은 몇개의 가면을 쓰고 계시나요?

## 기획단 후기

생애 처음으로 기획단에 참가해서 이렇게 후기를 남기네요 ㅎㅎ 기획단 티셔츠를 처음 입고 백양로를 거닐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보냈던 시선들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ㅎㅎ 정말 기획단 '잘.했.다'는 느낌! 우리 첫 문화제, 열심히 해서 연세대에 레즈비언 아싸리 광풍 센세이션을 일으켜 봅시다~

*– 광어*

으라차차~~ 스치는 바람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뭐 이젠 즐기는 거지뭐…
모두가 즐거운 문화제
'나.는.레.즈.비.언.입.니.다.'

*– 셈*



\(*'▽'*)/\(*'▽'*)/\(*'▽'*)/\(*'▽'*)/
ㅋㅋㅋ 좋잖아요, 레즈비언이라도.
D-day까지 화잇팅입니다! ㅋ

*– 쿠루루*

아~ 사랑해, 레즈비언, 게이, 이성애자, ?애자.
사랑해 인간들아~

*– 오리*

그냥 바라는 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무지 행복하답니다♡
우하하 레즈비언 문화제가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 미미*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 자몽*

저도 레즈비언입니다.
크하하하. 별로 한일도 없고 자주 빠지고 당굴댕굴 거렸지만
다들 좋아좋아~

*– 현수*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좋아라
우히우하하 우히우하하 아호아호아호
레레레레 레즈비언!

*– 유나*

다들 멋지쿤~. 음하하하 레즈비언 문화제 기대돼요!!

*– 초원*

성정체성 그따위 것 알게 모냐
그냥 난 우리가 따로 또 같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

*– 너희를 알아갈수록 행복해지는 베이*

자료집 빵빵하고 좋아요. 나중에 페이퍼로 써먹어야지–

*– 복어알*

랄랄라 모두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2007 레즈비언문화제 ♥

*– 레이*

멋진 분들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꼬리표를 달지 말아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 우주*

전할 말이 없어요. 글을쓰지 않었지 않어요.
염치없이 나중에 끼어들어서 남의 글만 씹어서 미안해요.

*– crocatio*

넘치는 일들 속에서 과로사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상상력과 고민들과 분노와 희망들로
가득차서 준비한 문화제는
마냥 즐겁지도, 마냥 희망차지도,
마냥 분노로 녹아 흐르지도 않을테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자 한다.

*– 이빨을 드러낸 초식동물 상어*

2007년 연세대학교 레즈비언 문화제

##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를 만든 사람들

광어 (사학 04)
나누기 (사회학 06)
누에 (인문 07)
딸기 (세라믹공학 06)
미미 (법학 02)
베이 (사회학 06)
복어알 (영문 03)
썸 (천문우주학 03)
오리 (화학 03)
초원 (국문 04)
쿠루루 (생물학 04)
한수 (법학 04)
crocatio (철학 03)

경계에서 솟아나는 색다른 가능성

## 〈Inside OUT〉 19대 총여학생회

레이 (간호 04)
상어 (불문 05)
우주 (간호 04)
유나 (인문 06)
이상 (인문 06)
자몽 (법학 05)